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On Versions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Daemyengryul-Jikhae*

장 경 준 (Chang, Kyong-Jun)**

진 윤 정 (Jin, Yun-Jeong)***

◁ 목 차 ▷

1. 머리말	3.1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2. 『대명률직해』의 계통	3.2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2.1 저본의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	4. 맺음말
2.2 서지적 차이에 따른 분류	<참고문헌>
3. 각 계통의 서지적 특징	

< 초 록 >

이 글은 현존하는 『대명률직해』의 여러 판본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본의 계통을 밝히고, 계통별로 서지적 특징을 요약하면서 선본을 선정하였다.

『대명률직해』의 이본은 저본의 성립 시기에 따라 ‘세종 13년 수정본’과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의 두 가지 계통으로 크게 나뉜다. 그리고 같은 목판으로 인쇄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세종 13년 수정본은 한 계통,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은 공주판(추정),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의 다섯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은 나머지 계통과는 저본이 다르고 형태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16세기 중엽의 중간본이 두 곳에 전하며 호사문고본이 선본이다.

둘째, 공주판(추정)은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을 1546년 공주에서 중간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간행된 판본들의 모본이 되었다. 두 곳에 전하며 내각문고본이 선본이다.

셋째, 광주판은 16세기 후반에 광주, 나주 지역에서 공주판을 다시 새긴 것으로 판각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 모두 6개가 전하며 연세대본, 통문관본, 규장각본(古)가 선본이다.

넷째, 진주판은 17세기 후반에 진주에서 광주판을 다시 새긴 것으로, 권12의 일부가 강해로 대체되고 권13에 조항 하나가 추가되었다. 세 곳에 전하며 제2책과 제4책은 만송문고본, 제3책은 경상대본, 제1책은 대가대본이 선본이다.

* 이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8470).

이 글은 2014년 춘계 서지학회 학술대회(2014. 5. 16.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verdulo89@nate.com)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snow17a@naver.com)

접수일: 2014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9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다섯째, 낙안판은 17세기 후반에 전주에서 새겨 낙안에서 인출한 것으로 진주판의 오류를 일부 수정한 반면 새로운 오류도 많이 생겼다. 모두 8개가 전하며 일부에서는 권28에 조항 하나가 추가되었다. 석전문고본이 선본이다.

여섯째, 평양판은 1686년 평양에서 간행하여 널리 보급된 것으로 다른 계통에 비해 오류가 많은 편이다. 모두 5개가 전하며 규장각본, 충남대본이 선본이다.

要語: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계통(系統), 세종 13년 수정본, 선본(善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versions of *Daemyengryul-Jikhae* and to summariz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select the fine print of each editions.

The different versions of *Daemyengryul-Jikhae*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a period of original script(底本). One is 'Sejong thirteen-year revised version' and the other is 'after Sejong thirteen-year revised version'. The former is classified into one edition and the latter is classified into five editions which are Gongju edition(estimated), Gwangju edition, Jinju edition, Nagan edition and Pyeongyang edition.

First, Sejong thirteen-year revised version is different from the other version in view of original script. And this version is also distinguished from material characteristics. There are two prints of this version. And the print possessed at Hosa's collection of books is the fine print.

Second, Gongju edition(estimated) was based on 'after Sejong thirteen-year revised version' and was published in Gongju. This edition had been become a model of other editions afterwards. There are two prints of this edition and the print possessed at Naegak's collection of books is the fine print.

Third, Gwangju edition was published in Gwangju and Naju area. Many errors were occurred in process of engraving. There are six prints of this edition. And the prints possessed at Yonsei University, Tongmungwan, Kyujanggak are the fine prints.

Fourth, Jinju edition was engraved in Jinju in the late 17th century. A part of contents of volume 12 were substituted with *Daemyengryul-Ganghae* and an additional article was inserted in volume 13. There are three prints of this edition. The prints possessed at Mansong's collection of books, Gyeongsang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re the fine prints.

Fifth, Nagan edition was engraved in Jeonju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printed in Nagan. The correction and occurrence of errors were co-occurred in process of engraving. There are eight prints of this edition and some of them have an additional article inserted in volume 28. The print possessed at Seokjeon's collection of books is the fine print.

Sixth, Pyeongyang edition was published in Pyeongyang in 1686 and propagated widely. This edition have many errors in comparison with others. There are five prints of this edition. And the prints possessed at Kyujanggak, Chungnam University are the fine prints.

Key words: *Daemyengryul-Jikhae*(大明律直解), version(系統), Sejong thirteen-year revised version, fine print(善本)

1. 머리말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조선에서 이두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¹⁾ 이 책은 현재 판본(板本)만 30여 개가 남아 있으며, 계통에 따라 책의 형태나 내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현전하는 책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계통을 분류하고, 각 계통을 대표하는 선본(善本)을 선정하여 대교(對校) 및 교감(校勘) 작업을 거쳐 정본(定本)을 확정하는 일은 이 자료의 연구에 기초가 된다.

『대명률직해』의 이본(異本)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일찍이 하나무라 미키(花村美樹: 1936)에서 시작된 이래 박희숙(1985), 안병희(1985), 남권희(1995), 장윤희(2003), 문소라(2012) 등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필자들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무라 선생의 『교정(校訂) 대명률직해』(1936) 이후 새로운 정본의 확정을 목표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4년 5월까지 모두 26개의 판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전하는 『대명률직해』는 저본(底本)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2가지 계통, 서지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6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해 온 『대명률직해』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본의 계통에 대해 논한 다음, 각 계통별로 특징을 요약하고 선본을 선정함으로써

1) ‘대명률직해’는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텍스트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텍스트가 포함된 책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책 이름으로서의 『대명률직해』는 근거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의 현전본들은 모두 권두서명이 『大明律』이며, ‘대명률직해’라는 이름은 하나무라(1936) 이후 직해가 있는 책을 직해가 없는 책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온 것일 따름이다(안병희 2003 참조). 기록상으로는 『故事撮要』의 책판 목록과 『稗官雜記』에 ‘直解大明律’이 보이고 『冊板置簿冊』에 ‘吏道大明律’이 나온다. 하지만 직해문이 있는 현전본 중에 『大明律』 이외의 권두서명을 지닌 것이 없는 점, 직해문이 없는 『大明律』과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조선에서 유통된 대명률 관련 서적이 주로 『大明律講解』, 『大明律附例』 등 ‘大明律’을 앞세운 것이 많은 점, ‘대명률직해’라는 이름이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 글에서도 『대명률직해』라 부르기로 한다.

2) 아직 조사하지 못한 개인 소장본이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를 참조하면, 이 여섯 가지 계통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책과 아직 보지 못한 책의 전체 목록은 이 글의 [붙임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앞으로 이루어질 대교 및 교감 작업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자세히 기술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여 언급을 줄이거나 생략할 것이다.³⁾

2. 『대명률직해』의 계통

2.1 저본의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

대명률은 명태조의 명으로 오원년(吳元年: 1367)에 편찬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홍무 30년(1397)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⁴⁾ 그리고 조선에서는 고려말에 들어온 대명률을 국초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대명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두로 번역하여 『대명률직해』를 간행하였다.

『대명률직해』의 원간본(原刊本)은 고사경과 김지가 번역하여 1395년에 서적원에서 목활자로 인출(印出)하였다.⁵⁾ 그러나 이 원간본은 실물이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⁶⁾ 다만, 조항의 개수가 현전본의 총목(總目)에 있는

3) 장경준(2013)은 내각문고본과 호사문고본, 장경준·진윤정·허인영(2013ㄱ)은 고려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9개, 장경준·진윤정·허인영(2013ㄴ)은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연세대·충남대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대마도 역사민속자료관 소장본 9개, 장경준(2014 예정)은 고마자와대학본과 호사문고본에 대해 각각 다루었다. 이 밖에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져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책으로는 경상대 문천각, 서강대 도서관, 통문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 등이 있다.

4) 박성종(2013)에 따르면, 대명률을 개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오원년(1367), 홍무7년(1374), 홍무9년(1376), 홍무18-19년(1385-6), 홍무22년(1389), 홍무30년(1397)의 변천 과정이 있었다.

5) 이는 발문에 나오는 다음 문구로 확인할 수 있다.
“政丞平壤伯趙浚 乃命檢校中樞院 高士娶與予囑其事 某等詳究反復 逐字直解 … 功既告訖 付書籍院 以白州知事徐贊所造刻字 印出 無慮百餘本 而試頒行 … 時洪武乙亥二月初 尙 尙友齋 金祗謹識”(정승 평양백 조준이 검교 중추원 고사경과 나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겼고, 우리들은 자세히 궁구하기를 거듭하며 자귀에 따라 직해하였다. … 일이 이미 마쳤기에 서적원에 보내 백주지사 서찬이 깎아 만든 활자로 인출하여 무려 백여 본을 우선 반포하여 시행하니 … 때는 홍무 을해년 2월 초하루 상우제 김지 삼가 씀).

대로 총 456개이고, 홍무 16년(1383) 이전의 율문을 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⁷⁾

이 원간본은 널리 보급되지 않았거나 번역에 문제가 많았던 듯하다. 얼마 지나지 않은 태종 연간에 대명률을 번역[譯]하고, 번역과 풀이[譯解]의 잘못을 개정(改正)한 기록이 보인다.⁸⁾ 그러나 실록 기사에 언급된, 태종조에 행해진 대명률의 번역 및 개정의 구체적인 모습도 자료가 전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현전하는 『대명률직해』의 도류천사지방(徒流遷徙地方)조에는 ‘楊廣道, 西海道, 交州江陵道’가 나오는데, 이는 원간본의 내용이 수정 없이 답습된 것이고,⁹⁾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태종조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명률의 번역이나 개정이 원간본을 바탕으로 하였으되 완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대명률은 다시 세종 13년(1431)에 번역과 풀이가 이루어진다. 다음의 실록 기사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¹⁰⁾

-
- 6) 간행 연도가 1395년이므로 번역의 저본이 된 율문이 홍무 30년 이전의 것임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몇년용이었던지는 알기 어렵다.
- 7) 박성중(2013)에서는 홍무 16년(1383) 9월에 제정된 ‘조참아패율(朝參牙牌律)’을 반영하는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조가 호사문고본 『대명률직해』 등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대명률직해』의 원간본이 홍무 16년 이전의 명률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8) 7. “議政府請譯律文, 定笞杖枷鎖制作之法, 從之. … 宜以俚言譯之, 頒布中外, 使官吏講習, 凡一笞一杖, 必依律施行”(의정부에서 율문을 번역하고 태·장·가·쇄를 제작하는 법을 정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마땅히 우리말로 이를 번역하여 중외에 반포해서 관리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여, 무릇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종 4(1404). 10. 28.
- 나. “命譯《大明律》, 勿雜用元律.”(대명률을 번역하고 원나라 율을 섞어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 11(1411). 12. 2.
- 다. “以南在, 李叔蕃爲詳定都監提調. … 至是, 上命崙等, 改正《明律》譯解誤處, … 請啓二人爲提調, 從之.”(남재와 이숙번을 상정도감제조로 삼았다. … 이때에 이르러 임금 이 하윤 등에게 명하여 명률 번역·풀이의 잘못된 곳을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 두 사람을 제조로 삼도록 계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 14(1414). 12. 15.
- 9) 이들 지명은 1394년 6월에 ‘忠淸道, 豐海道, 江原道’로 바뀌었다(『태조실록』 권6, 1394. 6. 23.). 따라서 도류천사지방(徒流遷徙地方)조의 번역은 적어도 1394년 6월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원간본의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마땅히 ‘忠淸道’ 등으로 반영하였어야 한다.
- 10) 이 글에서 제시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 표점, 번역은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인용하였다. 다만 표점과 번역문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수정하였으며, 밑줄은

- (1) ㄱ. “《大明律》文，語意難曉，照律之際，失於輕重，誠爲未便。乞以《唐律疏義》、《議刑易覽》等書，參考譯解，使人易知。”上曰：“然。錄其可編輯人名以聞。”(“대명률의 문장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율에 비추어 볼 적에 죄의 경중에 실수가 있으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바라옵건대 당률소의, 의형이람 등의 글을 참고해서 번역·풀이하여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것을 편집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아뢰라.”) -세종 13(1431). 6. 22.
- ㄴ. “命舍人趙瑞康、少尹權克和，譯解《大明律》于詳定所。”(사인 조서강과 소윤 권극화에게 명하여, 대명률을 상정소에서 번역·풀이하게 하였다.) -세종 13(1431). 6. 23.

그러나 위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반영하는 책은 현재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 무렵에 이루어진 『대명률직해』를 16세기에 중간(重刊)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 일본 호사문고와 고마자와대학에 전한다. 이 두 책의 저본이 1431년 무렵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율문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명률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취악인위처첩(娶樂人爲妻妾)조에 ‘洪武元年’이란 표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드문 표기로 명초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¹¹⁾ 고려말(또는 조선초)에 명태조의 이름을 피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²⁾ 이후에 간행된 『대명률직해』를 포함한 모든 대명률 관련 서적에서는 예외 없이 ‘洪武元年’이 쓰였다. 따라서 이 책의 저본은 ‘洪武元年’이 쓰인 다른 이본들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¹³⁾

강조를 위해 필자가 그었다.

- 11) 명나라 초기에 전 왕조의 이름인 ‘元’자를 피하거나 명태조의 이름을 피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原’자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명태조 생존 시에 편찬된 홍무 30년율에 ‘洪武元年’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명에서 간행된 초기 『대명률』에서 ‘洪武原年’을 썼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12) 『고려사』 권46 세가(世家)편 공양왕 3년(1391) 4월 기사에 “己卯 避帝諱，禁用元字，代以原。”(기묘일에 황제의 휘를 피하여 ‘元’자의 사용을 금하고 ‘原’자로 대신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고려말이나 조선초 자료에서 ‘洪武原年’의 표기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현재 이 자료가 유일례로 생각된다.
- 13) 그 시기는 적어도 홍무 30년율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명에서 최종 확정된 홍무 30년율은 조선에 한동안 수입되지 않았는데, 다음의 실록 기사를 고려하면, 아마도 세종조 무렵까지는 조선에서 홍무 30년 이전의 율문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직해문 중에 세종 7년(1425)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있다. 다섯 가지 형벌의 종류를 규정한 오형(五刑)조에는 신체형을 대신하여 속전(贖錢)을 거둘 때 징수하는 동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국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동전 1관을 오승포(五升布) 15필로 환산하여 받았다. 그런데 태종 6년(1406)에 속전의 양을 2/3로 줄이고, 세종 7년(1425)에 다시 1/3로 줄여주는 개정이 있었다.¹⁴⁾

“… 高皇帝詔本國曰：“據數千里之地，自爲聲教。”建文時，本國請《大明律》，詔旨不許曰：“儀從本俗，法守舊章。是則《明律》非本國要須遵守者也。故本國雖用《大明律》，因時俗事勢，或輕之，或重之，或別立新條者多。”(고황제가 본국에 조서하기를, ‘수천 리의 땅을 응거하여 스스로 성교를 하라.’ 하였고, 건문(建文: 明 惠帝의 연호 1399~1402) 때에 본국에서 대명률을 청하였는데 조지(詔旨)에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의례는 본속(本俗)을 따르고 법은 구장(舊章)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것은 명나라 법률이 본국에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국에서 비록 대명률을 쓰나, 시속(時俗)과 사세(事勢)에 인하여 혹은 가볍게 하고, 혹은 무겁게 하고, 혹은 따로 새 조장(條章)을 세운 것이 많다.) -세종 28(1446). 6. 7.

- 14) 다음의 실록 기사를 통해 1406년에는 동전을 오승포로 환산하는 비율을 2/3로 줄이는 방법으로, 1425년에는 수정된 동전의 양을 1/3로 줄이는 방법으로 속전을 줄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기사에 ‘準例贖布五百四十四’ 부분에서 ‘布五百四十四’은 ‘布三百六十匹’이어야 옳다).

“… 國初，因前朝之舊，以銅錢一貫，準五升布十五匹，至戊寅年，刑曹受教，杖一百徒三年者，當贖銅錢二十四貫，準例贖布五百四十四匹。貧乞之人，傾家破產，尙未充數，以違欽恤之意。若以銅錢一貫，準五升布十四匹，庶得輕重之宜。從之。”(… 국초에는 전조(前朝)의 옛 제도로 인하여 동전 1관을 오승포 15필에 준하였고, 무인년에 이르러 형조에서 수교하기를, ‘장 100 도 3년에 처한 자는 동전 24관을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에 준하면 배 540필을 속하여야 하니, 가난한 사람은 집안이 기울어 파산하여도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어긋나니, 동전 1관을 오승포 10필에 준하면, 거의 경중(輕重)이 적의함을 얻을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6(1406). 3. 7.

“… 議云：“請於《大明律》笞一十贖錢六百文，今減三分之二，贖錢二百文，每一十加二百文，笞五十一貫，杖六十一貫二百文，每一十加二百文，杖一百贖錢二貫。杖六十徒一年四貫，每一等加一貫，杖一百徒三年八貫，杖一百流一千里十貫，每一等加一貫，杖一百流三千里十二貫，絞斬十四貫。”從之。”(건의하기를 “청컨대 대명률에 의하면 ‘태 10에 속전 600문’이라 하였으니, 이제 3분의 2를 감하여 속전을 200문으로 하고, 10대마다 200문을 가산하여 태 50에는 1관으로 하며, 장 60에는 1관 200문으로 하고, 10대마다 200문을 가산하여 장 100에는 속전을 2관으로 하며, 장 60 도 1년에는 4관으로 하고, 한 등급마다 1관을 가산하여 장 100 도 3년은 8관으로 하며, 장 100 유 1000리는 10관으로 하고, 한 등급마다 1관을 가산하여 장 100 유 3000리는 12관으로 하며, 교형과 참형은 14관으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1425). 3. 9.

명률에 규정된 속전을 조선에서 오승포로 받을 때 적용한 수량을 간단히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초의 속전 규정

형량	명률에 규정된 속전	조선에서 적용한 속전		
		국초	1406년 이후	1425년 이후
태 10	동전 600문	오승포 9필	오승포 6필	오승포 3필
태 50	동전 3관	오승포 45필	오승포 30필	오승포 15필
장 100 도 3년	동전 24관	오승포 360필	오승포 240필	오승포 120필

그런데 이 책의 속전 규정에는 ‘태 10의 속전은 600문이며 오승포 3필로 환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42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책의 저본은 1425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⁵⁾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호사문고본과 고마자와대학본의 저본의 성립 연대는 1425년 이후 그리 멀지 않은 시기로 추정되고, 왕명에 의한 대명률의 번역과 풀이가 있었던 세종 13년(1431) 무렵이 아닐까 한다. 이 때 이루어진 『대명률직해』를 잠정적으로 ‘세종 13년 수정본’이라 불러 보자.¹⁶⁾

세종 13년 수정본의 내용은 이것을 중간한 것으로 보이는 호사문고본과 고마자와대학본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세종 13년 이전에 간행된 책이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율문 및 직해문의 구체적인 개정 상황은 알기 어렵다.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조선에서 적용하는 속전 규정이 추가 또는 개정되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고, 수록된 조항의 개수가 총 458개로 원간본에 비해 2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15) 앞으로 『대명률직해』의 원간본이나 1425년 이전에 간행된 이본이 발견된다면, 거기에는 태 10의 속전 600문을 오승포로 환산하는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현전본과 달리 ‘9필’ 또는 ‘6필’로 환산한다고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 중국에서 대명률 율문의 내용을 고치거나, 조선에서 대명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고친 것은 공식적인 법의 ‘개정(改定)’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명률직해』를 고쳐 간행할 때에는 대체로 원간본의 내용을 답습하고 개정된 율문 및 직해문의 내용을 일부만 반영한 경우가 많아 이것을 공식적인 ‘개정본’이라 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이유로 ‘개정본’ 대신 ‘수정본’이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세종 13년 수정본 『대명률직해』가 나온 이후 명률의 변화를 반영한 수정본이 다시 나왔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16세기 중간본이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와 고려대 만송문고에 전한다. 이 책에 수록된 조항의 개수(458개)와 배열 순서는 앞의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과 일치한다. 그런데 율문의 내용을 대교해 보면, 다른 시기의 명률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판각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한 동시에 새로운 오류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다. 명률의 개정을 율문에만 반영하고 직해문에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관찰된다.¹⁷⁾

이 수정본은 세종 13년 수정본과 마찬가지로 홍무 30년 이전의 율문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성립 시기는 세종 13년 수정본이 나온 1431년 무렵과 홍무 30년(1487년)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의 사이, 아마도 15세기 중엽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¹⁸⁾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때 이루어진 『대명률직해』를 잠정적으로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이라 불러 보자.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이 나온 뒤로 『대명률직해』의 율문 및 직해문의 개정을 반영한 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16세기 중엽에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을 중간한 책(내각문고본, 만송문고본)이 간행된 이후 이것을 모본(母本)으로 하여 다시 여러 차례 중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판본의 전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의 수정 및 새로운 오류의 발생, 이전 판본에 없던 조항의 추가¹⁹⁾ 등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전하는 『대명률직해』는 저본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으로 호사문고본과 고마자와대학본이 해당된다. 둘째는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으로 위의 두 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해당된다.

17) 자세한 내용은 장경준(2014 예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18) 대명률의 번역이나 개정에 관한 논의의 기록이 세종 13년의 실록 기사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9) 추가된 조항은 임란 이후의 판본에서만 나타나며, 홍무 30년(1487년)에 있는 것을 보충한 것으로서 율문만 있고 직해는 없으므로 『대명률직해』의 개정과는 무관하다.

2.2 서지적 차이에 따른 분류

현재 전하는 『대명률직해』는 ‘같은 목판으로 인출하였는가’ 하는 서지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하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세종 13년 수정본의 중간본(호사문고본, 고마자와대학본)이 먼저 한 계통으로 묶이고, 나머지 책들이 5가지 계통으로 묶인다. 이 5가지 계통을 간행지를 고려하여 이름을 붙이고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나열하면 공주판(추정),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의 순서가 된다.

위의 6가지 계통 간에 보이는 차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는 형태적 측면에서 각 계통을 구분해 주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인 것이고, <표 3>은 이본 조사 과정에서 행한 대교 내용 가운데 판이 거듭되면서 나타난 오류의 수정 및 새로운 오류의 발생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후대로 갈수록 점점 오류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각 계통의 형태적 차이

형태적 특징		계통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공주판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행관			일정치 없음	10행 20자로 일정함				
판식				흑구		백구· 흑구	백구	
권12의 장5, 6 내용				율문과 직해문		『大明律講解』로 대체됨		
총목 혼인편 조항수				計十八條			計十四條	
'私造斛斗秤尺'조				私造斛斗秤尺			私造斛斗徐尺	
조항 추가 여부	권13	목록		추가되지 않음			추가됨	
		본문		추가되지 않음		'懸帶關防牌面'조 추가됨		
	권28	목록		추가되지 않음				
		본문		추가되지 않음			'吏典代寫招草'조 추가됨	

<표 3> 각 계통의 내용적 차이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공주판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table border="1"> <tr> <td>불일치율²⁰⁾</td> <td>10.3%(25/237)</td> </tr> <tr> <td>오류 수정</td> <td>오류 발생</td> </tr> <tr> <td>6개</td> <td>19개</td> </tr> </table>	불일치율 ²⁰⁾	10.3%(25/237)	오류 수정	오류 발생	6개	19개					
불일치율 ²⁰⁾	10.3%(25/237)										
오류 수정	오류 발생										
6개	19개										
	<table border="1"> <tr> <td>불일치율</td> <td>38.4%(83/216)</td> </tr> <tr> <td>오류 수정</td> <td>오류 발생</td> </tr> <tr> <td>1개</td> <td>82개</td> </tr> </table>	불일치율	38.4%(83/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개	82개				
불일치율	38.4%(83/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개	82개										
		<table border="1"> <tr> <td>불일치율</td> <td>12%(26/216)</td> </tr> <tr> <td>오류 수정</td> <td>오류 발생</td> </tr> <tr> <td>10개</td> <td>16개</td> </tr> </table>	불일치율	12%(26/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0개	16개			
불일치율	12%(26/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0개	16개										
			<table border="1"> <tr> <td>불일치율</td> <td>20.3%(44/216)</td> </tr> <tr> <td>오류 수정</td> <td>오류 발생</td> </tr> <tr> <td>20개</td> <td>24개</td> </tr> </table>	불일치율	20.3%(44/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20개	24개		
불일치율	20.3%(44/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20개	24개										
				<table border="1"> <tr> <td>불일치율</td> <td>32.4%(70/216)</td> </tr> <tr> <td>오류 수정</td> <td>오류 발생</td> </tr> <tr> <td>14개</td> <td>56개</td> </tr> </table>	불일치율	32.4%(70/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4개	56개	
불일치율	32.4%(70/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4개	56개										

이상 파악한 6가지 계통 가운데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공주판(추정)·광주판은 임란 이전인 16세기에 간행되었고, 진주판·낙안판·평양판은 임란 이후인 17세기에 간행되었다. 이들 각각에 속하는 책들의 서지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0)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과 공주판 계통의 불일치율은 장경준(2013)의 대교 항목을 적용하였다.

3. 각 계통의 서지적 특징

3.1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일본 호사문고(蓬左文庫) 소장인 호사문고본과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소장인 고마자와대학본이 이 계통에 해당한다. 각 책의 형태서지는 아래와 같다.

<표 4>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의 형태서지

소장처	청구기호	약호	형태서지
호사문고	蓬左文庫 103-44 1-4	호사 문고본	30卷 4冊: 34.8×22.1cm; 25×17.8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24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1~2葉花紋魚尾
고마자와 대학	濯足 763 1-5	고마자와 대학본	30卷 5冊: 30.6×21cm; 24.9×18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24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1~2葉花紋魚尾

이 두 책은 본문의 내용뿐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다른 계통의 판본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계통에서는 행관이 10행 20자로 일정한 반면, 이 책들은 권차에 따라 행자수가 다르다. 제1책(권1-3)은 1행 24자, 제2책(권4-14)은 1행 20자, 제3책(권15-22)은 1행 21자, 제4책(권23-30)은 1행 24자인 것이다. 단, 권 25의 첫 조항인 범간(犯奸)조는 예외적으로 1행 25자로 새겨져 있다.

그리고 목록에서는²¹⁾ 목록3의 관심제가 ‘律目錄十五’로 되어 있고, 목록4의 제1장 상후구에 ‘二十三’이 새겨져 있어 다른 계통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그 시작이 각각 권15와 권23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권1의 도류천사지방(徒流遷徙地方)조와 권18의 친속상도(親屬相盜)조의 조항 이름이 온전히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점, ‘元, 之, 斤, 了’ 등 다양한 각수 이름이 발견되는 점([붙임 2] 참조) 등에서도 이 두 책은 다른 계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1) 『대명률직해』의 목록은 관심의 장차를 새로 매긴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五刑之圖, 五刑名義, 獄具之圖, 總論喪服之圖, 例分八字之義’ 등은 첫 번째 목록의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음). 이 네 부분의 목록을 이 글에서는 편의상 각각 목록1, 목록2, 목록3, 목록4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호사문고본과 고마자와대학본은 위의 형태적인 특징들이 모두 공통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100% 일치한다(<표 5> 참조).

<표 5>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의 텍스트 일치율²²⁾

비율 \ 약호	호사문고본	고마자와대학본
일치율	100% (216/216)	100% (216/216)

따라서 이들은 같은 목판으로 인출한 판본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두 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호사문고본의 인면이 더 선명하고 고마자와대학본은 목판의 마멸이 진행된 이후에 인쇄된 흔적이 다수 관찰된다(장경준 2014 예정). 그러므로 이 계통은 호사문고본이 더 먼저 인출된 선본으로 판단된다.


3.2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3.2.1 공주판(추정)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인 내각문고(內閣文庫)본과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인 만송문고본이 이 계통에 해당한다. 각 책의 형태서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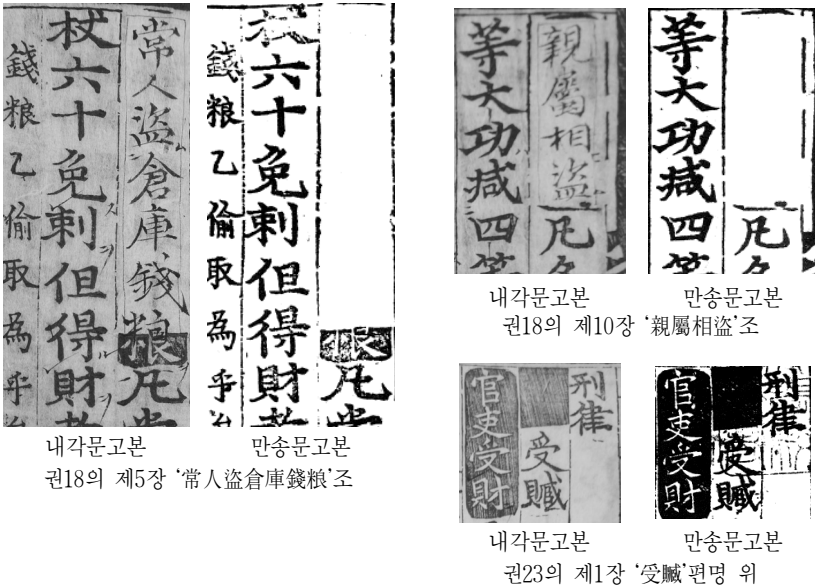
<표 6> 공주판 계통의 형태서지

소장처	청구기호	약호	형태서지
일본 국립공문서관	漢 9234 1-4	내각문고본	30卷 4冊: 35×21cm: 24.5×18.2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1~2葉花紋魚尾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B7-A118B 1-5	만송문고본	30卷 5冊: 31.4×21cm: 25.7×18.5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1~2葉花紋魚尾

22) 판본 간 텍스트 일치율은 내용 대교 216 항목에 대해, 각 계통의 선본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항목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대교 항목 중 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는 대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내각문고본이 30권 4책으로, 만송문고본이 30권 5책으로 묶인 점과 만송문고본은 목록의 일부와 발문이 결락되어 있는 점, 내각문고본에는 훈점 및 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 두 책은 거의 차이가 없다.

‘훈, 天, 王, 文王’ 등 다양한 각수 이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붙임 2] 참조), 조항 이름의 음각부분에서 동일한 특징이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어 권18의 상인도창고전량(常人盜倉庫錢糧)조는 마지막 글자 ‘糧’의 일부만 남아있고, 친속상도(親屬相盜)조는 조항 이름 전체가 공백으로 되어 있으며,²³⁾ 권23 수장(受贓)의 편명 위 공백이 묵등(墨等)으로 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내각문고본과 만송문고본의 조항 이름 모양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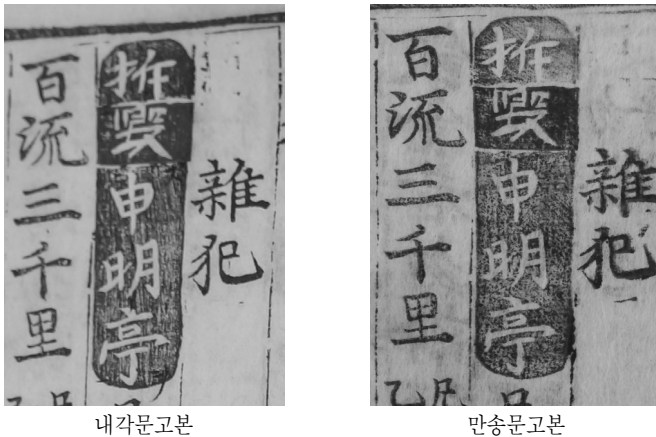
내각문고본과 만송문고본은 내용적으로도 100%에 가까운 일치율을 보인다 (<표 7> 참조).²⁴⁾

23) 내각문고본은 조항 이름의 빠진 부분을 보사해 넣었다(<그림 1> 참조).

<표 7> 공주판 계통의 텍스트 일치율

비율 \ 약호	내각문고본	만송문고본
일치율	100% (211/211)	99.5% (209/210)

따라서 두 책은 같은 목판으로 인출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본을 상세히 관찰해 본 결과 장경준(2013)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송문고본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가 내각문고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권26의 제1장 앞면의 척훼신명정(拆毀申明亭)조는 조항 이름이 만송문고본은 내각문고본에 비해 ‘毀’자가 상대적으로 더 진하게 인쇄되어 있고, 그 위아래의 구분선이 더 명확하다(<그림 2> 참조). 이는 매목한 ‘毀’자 부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로 올라와 생겨난 현상으로, 만송문고본이 더 나중에 인출된 후쇄본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공주판 계통의 두 판본 중에는 내각문고본이 선본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권26의 제1장 앞면 ‘拆毀申明亭’조

- 24) 두 책이 차이를 보이는 곳은 권21의 제1장 앞면 7행의 ‘州’자가 유일하다. 원본 확인 결과 내각문고본의 ‘州’자의 세 점 중에 앞의 두 개는 훈점 기입자가 보사한 것이고, 세 번째 점은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만송문고본에서는 세 번째 점도 탈각되어 ‘川’으로 나타난다.

이 두 책을 공주판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간행지를 표시한 간기(刊記)나 각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전하는 책 가운데 『패관잡기』 권4에 나오는 “嘉靖丙午 元參議混 觀察湖西 見而嘉之 遂入梓於公州”(가정병오년(1546)에 참의 원혼이 호서지역을 관찰하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여 마침내 공주에서 판에 새기게 하였다)는 기록에 부합하는 판본이 내각문고본과 만송문고본이라고 판단된다.²⁵⁾

3.2.2 광주판

광주판 계통의 책은 6개가 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인 규장각본(奎)과 규장각본(古), 연세대 도서관 소장인 연세대본, 통문관 소장인 통문관본,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인 일사문고본, 계명대 도서관 소장인 계명대본이다. 각 책의 형태서지는 아래와 같다.

<표 8> 광주판 계통의 형태서지

소장처	청구기호	약호	형태서지
서울대 규장각	奎5938	규장각본 (奎)	30卷 4册; 32.8×21.8cm; 24×18.3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서울대 규장각	古5130-11 -v.1-4	규장각본 (古)	30卷 4册; 32.8×22cm; 24.3×18.5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연세대 도서관	고서 귀 675.0	연세대본	零本 1册(卷11-20); 33.7×22cm; 24.5×18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통문관	청구기호 없음	통문관본	零本 1册(卷6-19); 33.5×21.6cm; 23.9×18.2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규장각 일사문고	一叢古349.2-D131 v.3-12	일사 문고본	零本 1册(卷3-12); 32.4×21.5cm; 23.3×18.1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계명대 도서관	(이귀) 349.14 고사경대 1-2	계명대본	30卷 2册; 30.9×21.2cm; 23.8×17.6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25) 판식이나 지질 등을 감안하면, 현전본 중에 1546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책은 호사문고본, 고마자와대학본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들은 각 책의 목록과 판식이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네 곳(혹은 세 곳)에서 나누어 판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기록에 나오는 공주간본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광주판의 책들은 판심의 흑구에 ‘光州太華, 光州太華刊, 光州, 光州’ 등의 지명이 새겨져 있어 광주, 나주 지역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그 밖에 다양한 각수 이름 및 판심의 특징이 공통되고([붙임 2] 참조), 내용 대교에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일치율을 보이므로(<표 9> 참조) 모두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다.

<표 9> 광주판 계통의 텍스트 일치율

비율 \ 약호	규장각본(古)	규장각본(奎)	연세대본	통문관본	일사문고본	계명대본
일치율	100% (211/211)	99% (200/202)	100% (101/101)	100% (86/86)	100% (37/37)	98.9% (190/192)

한편 이 계통의 책에서는 권12의 두 장이 장차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며, 제5, 6장의 내용이 규장각본(奎)·연세대본·통문관본에는 통제로 빠져 있다.²⁶⁾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광주판 계통의 권12 구성

약호	장차 표시 ²⁷⁾	제5, 6장의 내용
규장각본(奎)	一, 二, 三, 四, 〇, 六, 九	없음
규장각본(古)	一, 二, 三, 四, 五, 六, 〇(七), 六(八), 九	율문과 직해문
연세대본	一, 二, 三, 四, 〇, 六, 九	없음
통문관본	一, 二, 三, 四, 〇, 六, 九	없음
일사문고본	一, 二, 三, 四, 五, 六, 〇, 六, 九	율문과 직해문
계명대본	▣, ▣, ▣, 四, (제5장 이하는 缺張)	缺張

또한 권10도 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 내용을 아래의 <표 11>에 정리하였다.

26) 규장각본(古)·일사문고본에는 정상적으로 율문과 직해문이 존재한다.

27) ‘〇’는 해당하는 장의 상하어미 사이에 장차 표시가 없음을 나타내고, ‘▣’는 자형 파악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표 11> 광주판 계통의 권10에서 나타나는 차이

항목	위치	규장각본(奎)	통문관본	계명대본	규장각본(古)	일사문고본
반엽광곽	10:1a	24×18.5	24×18.5	24×18.5	22.8×17.9	22.8×17.9
각수 이름	10:1 하흑구			(관심 훼손)	없음	없음
	10:2 상흑구			(관심 훼손)	없음	없음
동그라미 모양	10:2a:3	○	○	○	▲	▲
	10:2a:4	○	○	○	▲	▲
	10:2a:8	R○/L○	R○/L○	R○/L○	R▲/L▲	R▲/L▲
직해문 ²⁸⁾	10:2a:8R	賈	賈	賈	賈	賈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규장각본(古)와 일사문고본의 권10이 보판(補板)이기 때문이다. 광곽의 크기나 서체가 다르고, 각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 한눈에 보판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권12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규장각본(古)와 일사문고본이 하나로 묶인다.²⁹⁾

광주판 계통의 인출 시기의 선후 관계는 ‘연세대본 → 통문관본 → 규장각본(奎) · 규장각본(古) · 일사문고본 → 계명대본’의 순으로 보인다. 인면을 비교해보면 연세대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고, 계명대본이 가장 늦게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그리고 규장각본(奎) · 규장각본(古) · 일사문고본은 인면의 상태가 비슷하여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규장각본(古)는 권12의 내용이 완전하므로 내용 대교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광주판 계통은 권11-20은 연세대본, 권6-10은 통문관본, 나머지는 규장각본(古)를 선본으로 선정할 수 있다.

28) 권10의 제2장 앞면 8행의 직해문 ‘他矣 物色賈賣次’가 규장각본(奎) · 계명대본 · 통문관본은 제대로 새겨져 있는 반면, 규장각본(古)와 일사문고본은 ‘他矣 物色賈賣次’로, ‘賈’자가 ‘賈’로 잘못 새겨져 있다.

29) 이를 통해 권12의 제5장 이하가 결장인 계명대본은 규장각본(奎) · 연세대본 · 통문관본과 마찬가지로 제5, 6장의 내용이 없었으며, 권10이 결책(缺冊)인 연세대본은 보판이 아닌 원래의 목판으로 인출되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0) 예를 들어 권19의 제5장 앞면을 보면, 연세대본과 통문관본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들은 모두 목판의 마멸로 글자가 잘 찍히지 않았다. 연세대본과 통문관본이 보판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광곽의 크기나 각수 이름이 동일하여 보판이 아님이 분명하다.

3.2.3 진주판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인 만송문고본과 경상대 문천각 소장인 경상대본,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소장인 대가대본이 이 계통에 해당한다. 각 책의 형태서지는 아래와 같다.

<표 12> 진주판 계통의 형태서지

소장처	청구기호	약호	형태서지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B7-A118 24	만송문고본	零本 2册(卷4-14, 23-30); 34.4×22cm; 23×18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間混黑口 上下內向2~3葉花紋魚尾
경상대 문천각	古(하남) B13C 고51ㄷ v.2-4	경상대본	零本 3册(卷4-14, 15-22, 23-30); 32×21.7cm; 23×18.3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間混黑口 上下 內向2~3葉花紋魚尾
대가대 도서관	동369.12 대 34 1-4	대가대본	30卷 4册; 31.3×21.7cm; 22.4×19.3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間混黑口 上下內向2~3葉花紋魚尾

진주판 계통 가운데 경상대본과 대가대본에는 목록3의 제3장 상혹구에 ‘晋州上’이 새겨져 있다. ‘晋州上’의 ‘上’은 소장처를 의미하므로 진주에서 이 목판을 새겨 소장하고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경상대본



대가대본

<그림 3> 목록3의 제3장 상혹구 ‘晋州上’

그리고 만송문고본은 제2책 앞표지의 배접지로 사용된 문서에 康熙 19년(1680)의 기록이 있어 인출 시기가 1680년 무렵임을 추정할 수 있다.³¹⁾

<표 13> 만송문고본 제2책 앞표지 배접지의 기록

기록	연대
1. 出身 金昌業 己未 三月初一日 (手決)	1679년
2. 出身 李世榮 戊午 九月初一日 (手決)	1678년
3. 李□□ 己未 九月初一日	1679년
4. □□□ 庚申 三□ …	1680년
5. □□□ 丁巳 六月 …	1677년
6. □熙 十九年 五月初一日 行郡守 鄭 (手決)	1680년



<그림 4> '康熙十九'의 문서

진주판의 세 책을 한 계통으로 묶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판식의 특징에 있다. 진주판은 기본적으로 백구본이나 흑구가 간혹 섞여 나타나는데 흑구가 나타나는 부분이 동일하고, 그 밖에 판심제나 장차에서 발견되는 특징도 완전히 일치한다 ([붙임 2] 참조). 다만, 대가대본과 경상대본은 권12에 앞뒤가 뒤바뀐 장이 있다 (장경준·진윤정·허인영 2013ㄴ).

31) <표 13>의 6번 '□熙'는 1~5의 기록으로 보아 '康熙'가 분명하다. 문소라(2012)에서도 이 기록을 언급하였으나 '十九年'을 '九年'으로 잘못 보았고, 연대 추정도 1631년으로 잘못 하였다.

<표 14> 진주판 계통의 권12의 구성³²⁾

만송문고본	장차 표시	一	二 ³³⁾	二	四	六	○	六	□
	내용	一	二	三	四	五, 六 (講解)	七	八	내용 없음

경상대본 대가대본	장차 표시	一	二	二	四	○	六	六	□
	내용	一	二	三	四	七	五, 六 (講解)	八	내용 없음

또한 이 세 책은 단죄인율령(斷罪引律令)조와 모파물료(冒破物料)조의 조항 이름의 음각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동일하고,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한다 (<표 15> 참조).

<표 15> 진주판 계통의 텍스트 일치율³⁴⁾

비율 \ 약호	대가대본	만송문고본	경상대본
일치율	100% (201/201)	100% (78/78)	100% (160/160)

한편 진주판은 광주판 중에 권12의 제5, 6장의 내용이 통제로 빠진 판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판의 권12의 ○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³⁵⁾

32) '□'표시는 장차표시가 없고, 해당하는 장에 내용이 없음을 나타낸다. 만송문고본과 대가대본에는 권12의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이 없는 장이 한 장 들어가 있는데, 경상대본에는 이 장이 없다.

33) 만송문고본과 대가대본의 권12의 제2장은 판심제가 '律十二'가 아닌 '律二十'으로 잘못 되어 있다. 만송문고본은 내용에 맞게 묶여 있지만, 대가대본의 권12의 제2장은 권20의 제2장 자리에 실려 있고 권20의 제2장은 결장이다. 한편 경상대본은 권12의 제2장이 결장이어서 그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34) 대가대본은 진주판 계통 내에서 인출 시기가 가장 늦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전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

35) 다만 제1행의 직해문이 제거되었고, 제10행의 율문에서 '宦'자가 '官'자로 새겨져 있어 완전

다만 진주판에는 광주판에 없던 제5, 6장의 내용을 『대명물강해』로 대체한 한 장을 추가하였다.

진주판의 세 책은 인면의 비교를 통해 인출 시기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14 제6장 제1행 직해문의 왼쪽 ‘烽’자의 경우, 만송문고본에서는 자형이 명확하나 경상대본은 ‘烽’자임이 겨우 확인되고, 대가대본은 자형을 알아 보기 힘들다. 이러한 경향성은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진주판은 ‘만송문고본 → 경상대본 → 대가대본’의 순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주판에서는 제2, 4책은 만송문고본, 제3책은 경상대본, 제1책은 대가대본을 선본으로 선정할 수 있다.

3.2.4 낙안판

낙안판 계통의 책은 총 8개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석전문고 소장인 석전문고본, 계명대 도서관 소장인 계명대본, 고려대 도서관 소장인 고려대본, 경북대 도서관 소장인 경북대본, 통문관 소장인 통문관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인 일본국회도서관본, 일본 대마도 역사민속자료관 소장인 소케문고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인 장서각본이다. 각 책의 형태서지는 아래와 같다.

<표 16> 낙안판 계통의 형태서지

소장처	청구기호	약호	형태서지
대가대 석전문고	동369.12 대 34 1-4	석전문고본	30卷 4冊: 33×22.2cm; 23.4×18.6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계명대 도서관	(이) 349.14 고사경ㄷ 1-4	계명대본	30卷 4冊: 31×21.3cm; 22.5×18.3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고려대 도서관	B7-A41 1-3	고려대본	30卷 3冊: 32.3×21.3cm; 22.7×18.5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한 번각(飜刻)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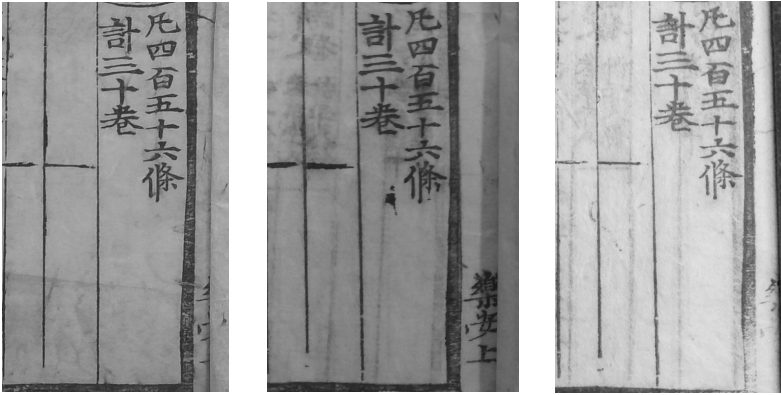
소장처	청구기호	약호	형태서지
경북대 도서관	古中 340.962 대34	경북대본	零本 1册(卷4-14); 33.4×22.6cm; 23.1×18.5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통문관	없음	통문관본	零本 1册(卷21-30); 33.8×21.7cm; 22.7×18.1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WB23-1	일본국회 도서관본	零本 1册(卷19-30); 32×21.8cm; 23.5×18.6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일본 대마도 역사민속 자료관	宗家文庫 漢籍 朝鮮刊本 B-6 1-1,2,3,4,5,6	소케문고본	30卷 6册; 32.3×21.3cm; 22.7×18.3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B131C-2	장서각본	零本 1册(卷23-30); 33.4×22.3cm; 23.4×18.3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이들 가운데 계명대본, 고려대본, 소케문고본은 총목 오른쪽 변란 바깥에 ‘樂安上’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소케문고본은 ‘樂’까지의 흔적만 보인다(<그림 5> 참조).³⁶⁾ ‘樂安上’을 통해 이 목관이 낙안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낙안판의 목관은 본래 전주 지역에서 康熙 7년(1668) 무렵에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초쇄본으로 보이는 석전문고본의 표지 배집지에 ‘康熙7年’과 함께 ‘全州, 慶基殿, 金溝, 泰仁, 扶安’ 등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남권희 1995: 134). 아마도 본래 전주에 있던 목관을 낙안으로 옮겼고, 그 이후에 총목을 새로 새기면서 변란 바깥에 ‘樂安上’을 같이 새겨 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³⁷⁾

36) 안병희(1985)는 ‘樂安上’을 묵인(墨印)으로 보았으나 원본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하나무라(1936)의 기술처럼 쇄출(刷出)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37) 따라서 최초 간행지를 기준으로 하면 ‘전주판’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석전문고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이 낙안에서 소장된 목관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목관에 ‘樂安上’이 새겨져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이 글에서는 ‘낙안판’이라 하였다.



계명대본

고려대본

소케문고본

<그림 5> 계명대본, 고려대본, 소케문고본 총목 변란 ‘樂安上’

낙안판의 책들은 범죄사발재도(犯罪事發在逃)조와 위조보초(僞造寶鈔)조의 조항 이름의 음각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동일하고, 유일하게 나타나는 각수 이름도 일치하며([붙임 2] 참조), 내용적으로도 100%에 가까운 일치율을 보인다 (<표 17> 참조).

<표 17> 낙안판 계통의 텍스트 일치율

약호 비율	석전문고본	계명대본	고려대본	경북대본	통문관본	일본국회 도서관본	소케문고본	장서각본
일치율	100% (215/215)	97.6% (209/214)	95.8% (206/215)	97.5% (39/40)	98.1% (52/53)	98.9% (90/91)	97.1% (205/211)	97.3% (37/38)

한편 낙안판 계통은 기본적으로 권12의 장5, 6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명률강해』로 대체되어 있는데, 석전문고본과 경북대본은 각각 광주판 계통의 내용이 한 장씩 잘못 들어가 있다(장경준·진윤정·허인영 2013ㄴ). 이를 아래의 <표 18>에 정리하였다.

<표 18> 광주판 규장각본(奎), 낙안판 석전문고본·경북대본, 평양판 규장각본의 권12 구성

광주판		낙안판				평양판	
규장각본(奎)		석전문고본 ³⁸⁾		경북대본		규장각본	
장차	조항	장차	조항	장차	조항	장차	조항
○	匿父母夫喪	○	匿父母夫喪	五	禁止迎送	五	禁止迎送
	棄親之任		棄親之任		公差人員欺陵長官		公差人員欺陵長官
					服舍違式		服舍違式
					僧道拜父母		僧道拜父母
六	喪葬	六	失占天象	六	喪葬	六	失占天象
	鄉飲酒禮		術士妄言禍福		鄉飲酒禮		術士妄言禍福
			匿父母夫喪		匿父母夫喪		
九	卷尾題	七	棄親之任	七	棄親之任	七	棄親之任
			喪葬		喪葬		喪葬
		八	鄉飲酒禮	八	鄉飲酒禮	八	鄉飲酒禮
			卷尾題		卷尾題		卷尾題

또 낙안판의 책들은 권28의 마지막에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조의 추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표 19> 참조).

<표 19> 낙안판 계통의 권28의 조항 추가 여부

고려대본		석전문고본		계명대본·통문관본 일본국회도서관본·장서각본		소케문고본	
19 장	斷罪不當	19 장	斷罪不當	19장	斷罪不當	19 장	斷罪不當
	卷尾題		卷尾題		吏典代寫招草		吏典代寫招草
		20 장	卷尾題	20장	卷尾題	19 장	斷罪不當 卷尾題
						20 장	卷尾題

38) 석전문고본은 권12의 제7장과 권13의 제7장이 서로 뒤바뀌어 실려 있다.

고려대본과 석전문고본은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조가 추가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책은 이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소케문고본은 추가된 장 이후에 추가되지 않은 장이 연달아 나와 제19장이 중복되어 실려 있다. 소케문고본을 통해서 조항이 추가된 제19장과 권미제만 새겨진 제20장은 새로 새긴 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전문고본에는 어찌된 일인지 새로 새긴 제19장이 빠져 있다.³⁹⁾

낙안판 계통의 인출 시기의 선후 관계는 ‘석전문고본 → 계명대본 → 고려대본 · 경북대본 · 통문관본 · 일본국회도서관본 → 소케문고본 · 장서각본’의 순으로 보인다. 인면을 비교해 보면 석전문고본이 초쇄본이고, 소케문고본과 장서각본이 가장 후쇄본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판본 중에서는 계명대본이 비교적 글자가 명확히 보인다.⁴⁰⁾ 따라서 낙안판의 선본은 석전문고본으로 선정할 수 있다.⁴¹⁾

3.2.5 평양판

평양판에 속하는 책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인 규장각본, 충남대 도서관 소장인 충남대본, 서강대 도서관 소장인 서강대본,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인 일사문고본,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인 만송문고본 등 5개가 있다. 각 책의 형태서지는 아래와 같다.

-
- 39) 보판으로 추가된 제19, 20장이 평양판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의 내용 대교에서 진주판과 동일하고 평양판과는 차이를 보여 평양판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은 낮다.
- 40) 고려대본 · 경북대본 · 통문관본 · 일본국회도서관본은 인면의 상태가 비슷해 인출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 41) 그런데 석전문고본은 총목이 다른 목판으로 인출되어 있고, 내용 대교에서도 낙안판의 다른 책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낙안판에서는 석전문고본을 선본으로 삼되, 계통 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계명대본을 대교 대상으로 보충하기로 한다.

<표 20> 평양판 계통의 형태서지

소장처	청구기호	약호	형태서지
서울대 규장각	貴1709 -v.1-4	규장각본	30卷 4冊: 33.8×22.5cm; 22.8×18.5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충남대 도서관	고서史 政法類 73. 1-4	충남대본	30卷 4冊: 34×22.2cm; 21.8×17.5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서강대 도서관	도서 정리중	서강대본	30卷 4冊: 33.8×22.3cm; 22.5×18.7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규장각 일사문고	一叢古349.2-D131 v.15-22, v.23-30	일사 문고본	零本 2冊(卷:15~22, 23~30); 34.4×22.3cm; 22.2×18.5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B7-A118A 1-3	만송 문고본	30卷 3冊: 29.7×21cm; 22×18cm; 四周單邊: 有界; 10行 20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1~3葉花紋魚尾

평양판은 권3, 14, 22, 30(발문)의 말미에 ‘丙寅十月 日平安監營開刊’의 간기가 있다.⁴²⁾ 규장각본과 서강대본은 내사본인데, 규장각본에는 ‘乾隆五十一年 丙午 七月二十九日 / 舊藏 / 大明律一件 / 內賜■■■■惟正司’,⁴³⁾ 서강대본에는 ‘康熙二十六年 九月初五日 / 內賜藝文館 檢閱鄭澣 大明律 一 / 件 / 命除謝 / 恩 同副承旨 臣朴 (手決)’이라는 내사기가 있어 각각 1786년, 1687년에 내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강대본의 내사기로 평양판 간기의 丙寅年은 1686년임이 확실해졌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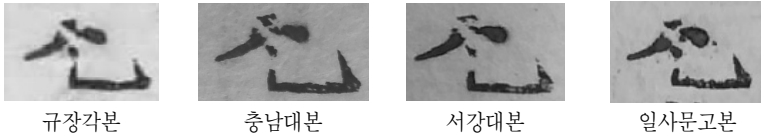
42) 평양판 계통은 대체로 목록에 맞게 권1-3, 권4-14, 권15-22, 권23-30으로 30권이 네 책으로 편철되어 있다. 다만 만송문고본만 권1-5, 권6-18, 권19-30으로 세 책으로 묶여 있고, 간기도 권14의 말미에만 보이며, 권30의 말미에는 ‘營開刊’만 나타난다.

43) 본래 ‘■■■■’ 자리에는 ‘摛文院’이라 쓰여 있었는데, 이를 먹으로 지우고 그 아래에 ‘惟正司’라고 적어 놓았다.

44) 서강대본과 같은 시기에 내사된 다른 책이 문소라(2012)에서 소개되었다. 문소라(2012)에서 소개된 내사본에는 ‘丁卯九月初五日 / 內賜行副護軍 李翔 / 大明律一件 / 命除謝 / 恩 同副承旨 臣 朴 (手決)’이라는 내사기가 있다. 문소라(2012)는 이 기록에서 보이는 李翔의 생몰연대(1620~1690년)를 통해 丁卯年을 1687년이라 추정하였다.

이 계통의 책들은 권12의 제5, 6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명물강해』로 대체되어 있고, 권13의 마지막에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조가, 권28의 마지막에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조가 직해문 없이 율문만 추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목판으로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公, 仁, 朴, 山’ 등 다양한 각수 이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붙임 2] 참조), 권21 매리(罵罵)편의 조항 이름에 매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는 점도 동일하며, 권25의 제2장 앞면 제1행에 있는 ‘乞’자의 자형도 동일하다(<그림 6> 참조).



<그림 6> 권25 제2장 앞면 제1행 ‘乞’자 자형 비교

평양판의 책들은 내용 대교에서도 100%의 일치율을 보인다(<표 21> 참조).

<표 21> 평양판 계통의 텍스트 일치율

비율 \ 약호	규장각본	충남대본	서강대본	일사문고본	만송문고본
일치율	100% (216/216)	100% (216/216)	100% (216/216)	100% (134/134)	100% (206/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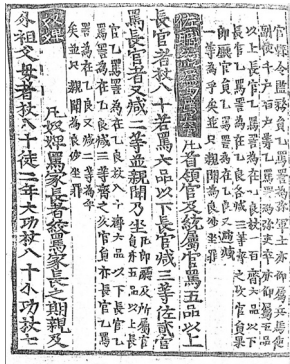
그리고 권21 매리(罵罵)편의 조항 이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평양판 계통의 인출 시기의 선후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는 권21의 제1장 뒷면만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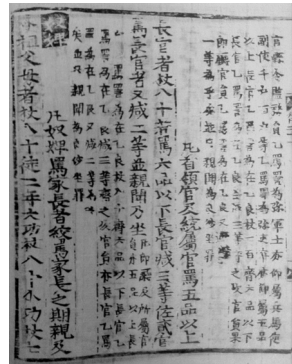
규장각본

충남대본

서강대본



일사문고본



만송문고본

<그림 7> 권21의 제1장 뒷면 조항 이름의 음각 부분

먼저, 인면의 상태나 제1장 뒷면 9행에서 매목한 ‘罵家長’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규장각본과 충남대본, 서강대본이 나머지 두 판본보다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다섯 판본 중 목판의 마멸이 심해 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만송문고본이 가장 후쇄본임을 알 수 있다.⁴⁵⁾ 규장각본·충남대본·서강대본은 인출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서강대본보다 규장각본과 충남대본에서 계선이 더 분명하고 목리가 적어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기

45) 일사문고본에서 나타나는 좌직통속매장관(佐職統屬罵長官)조의 이름이 만송문고본에서는 통째로 빠져있는 것을 통해 제확인할 수 있다.

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관 계통의 인출 시기는 ‘규장각본·충남대본 → 서강대본 → 일사문고본 → 만송문고본’으로 파악되며, 규장각본과 충남대본을 선본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재 전하는 『대명률직해』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본의 계통을 밝히고, 각 계통의 서지적 특징을 요약하면서 선본을 선정해 보았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고려대(4개), 경북대(1개), 경상대(1개), 계명대(2개), 대구가톨릭대(2개), 서강대(1개), 서울대 규장각(5개), 연세대(1개), 충남대(1개), 통문관(2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1개), 일본에서 고마자와대학(1개), 국립공문서관(1개), 국립국회도서관(1개), 대마도 역사민속자료관(1개), 호사문고(1개) 등에 소장된 26개의 판본이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명률직해』의 이본은 저본의 성립 시기에 따라 ‘세종 13년 수정본’과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의 두 가지 계통으로 크게 나뉜다. 세종 13년 수정본의 연대 추정 근거는 취악인위처첩(娶樂人爲妻妾)조의 ‘洪武元年’ 표기, 오형(五刑)조의 속전 규정, 세종 실록의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목관으로 인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계통을 분류하면 세종 13년 수정본은 한 계통,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은 공주판(추정),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의 다섯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은 나머지 계통과는 저본이 다르고 형태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16세기 중엽의 중간본이 두 곳에 전하며 호사문고본이 선본이다.

둘째, 공주판(추정)은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을 1546년 공주에서 중간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간행된 여러 판본의 모본이 되었다. 두 곳에 전하며 내각문고본이 선본이다.

셋째, 광주판은 16세기 후반에 광주, 나주 지역에서 공주판을 다시 새긴 것으로

판각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 모두 6개가 전하며 연세대본, 통문관본, 규장각본(古)가 선본이다.

넷째, 진주판은 17세기 후반에 진주에서 광주판을 다시 새긴 것으로, 권12의 일부가 강해로 대체되고 권13에 조항 하나가 추가되었다. 세 곳에 전하며 제2책과 제4책은 만송문고본, 제3책은 경상대본, 제1책은 대가대본이 선본이다.

다섯째, 낙안판은 17세기 후반에 전주에서 새겨 낙안에서 인출한 것으로 진주판의 오류를 일부 수정한 반면 새로운 오류도 많이 생겼다. 모두 8개가 전하며 일부에서는 권28에 조항 하나가 추가되었다. 석전문고본이 선본이다.

여섯째, 평양판은 1686년 평양에서 간행하여 널리 보급된 것으로 다른 계통에 비해 오류가 많은 편이다. 모두 5개가 전하며 규장각본, 충남대본이 선본이다.

이 밖에 아직 조사하지 못한 개인소장본이 몇 개 남아 있어 이 글에서 기술한 내용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 새로운 계통의 이본이 추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명률직해』의 각 계통을 대표하는 선본을 정밀하게 대교하고 교감하여 새로운 정본을 확정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남권희. “<大明律直解>의 書誌學的 考察.” 『고서연구』 12(1995). 130-139.
- 남만성. “解題.” (법제처 편(1964) 所收). 10-17.
- 문소라. “朝鮮時代 간행의 『大明律』 註釋書 板本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 박성중. “明律의 변천과 문체, 그리고 『大明律直解』의 저본.” 『국어사연구』 17(2013. 10). 167-196.
- 박희숙.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1985.
- 법제처 편. 『大明律直解』 (法制資料誌 제13집. 남만성·윤재수 註解, 전봉덕 校閱). 1964.

- 보경문화사. 『大明律直解』(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영인 제16호). 1986.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大明律直解』(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2001.
- 안병희. “大明律直解 吏讀의 研究.” 『규장각』 9(1985). 1-22.
안병희. “解題.” (보경문화사(1986) 所收) 1-8.
안병희. “『大明律直解』의 書名.” 『한국어연구』 1(2003). 117-140.
- 장경준. “일본 내각문고와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의 서지에 관한 기초 연구.” 『어문논집』 68(2013). 329-356.
장경준. “고마자와대학과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 고판본에 대하여.” (심사중 2014 예정).
- 장경준, 진윤정, 허인영.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1) - 고려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16(2013. 4). 127-172.
장경준, 진윤정, 허인영.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2) -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충남대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일본 소케문고(宗家文庫) 소장본을 중심으로 -.” 『어문학』 122(2013. 12). 269-320.
- 장윤희. “『大明律直解』의 書誌學的 考察.” 『진단학보』 96(2003). 265-288.
정공식, 조지만. “大明律 解題.”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1) 所收). 7-60.
정공식, 조지만.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變容.” 『진단학보』 96(2003). 205-242.
- 조선총독부중추원 편. 『校訂 大明律直解』. 서울: 경인문화사, 1936/2000.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파주: 지식산업사, 2003.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濯足庵藏書六十一種』. 1936.
하나무라 미키(花村美樹). “大明律直解 解說.” (朝鮮總督府中樞院 편(1936/2000) 所收). 1-24.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宗家文庫藏朝鮮本に就いて: 『天和三年目錄』と 現存本を對照しつつ.” 『朝鮮學報』 99・100(1981). 195-224.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붙임 1] 『대명률직해』 판본의 목록

계통	약호	소장처	청구기호	참고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호사문고본	일본 호사문고	逢左文庫 103-44 1-4 (원본)		
	고마자와 대학본	일본 고마자와대학	濯足 763 1-5 (원본)	• 花村美樹(1936)의 '濯足庵本', 안병희(1985)의 '駒澤大學本'임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공 주 관	내각문고본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漢 9234 1-4 (원본)	
		만송문고본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B7-A118B 1-5 (원본)	• 영인본(보경문화사 1986) ⁴⁶⁾ • 장경준 외(2013ㄱ, ㄴ)의 '만송문고A본'임
	광 주 관	규장각본 (奎)	서울대 규장각	奎 5938 (원본, 복제본)	• 花村美樹(1936)의 '홍문관본', 장경준 외(2013ㄱ, ㄴ)의 '홍문관A본'임
		규장각본 (古)	서울대 규장각	古 5130-11-v.1-4 (원본, 마이크로필름)	• 안병희(1985)의 '홍문관본', 장경준 외(2013ㄱ, ㄴ)의 '홍문관B본'임
		연세대본	연세대 도서관	고서 귀 675.0 (원본, 마이크로필름)	• 문소라(2012)의 '태화나주판'임
		통문관본	통문관	청구기호 없음 (원본)	• 박희숙(1985)의 이경로 소장본임
		일사문고본	규장각 일사문고	一叢古 349.2-D131 v.3-12 (원본)	• 평양판 일사문고본과 동일한 청구기호가 매겨져 있음 ⁴⁷⁾ • 장경준 외(2013ㄱ)의 '홍문관C본'임
	계명대본	계명대 도서관	(이귀) 349.14 고사경대 1-2 (원본)	• 문소라(2012)의 '태화나주판', 장경준 외(2013ㄴ)의 '계명대A본'임	
	진 주 관	만송문고본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B7-A118 2, 4 (원본)	• 안병희(1985)의 '만송문고본', 장윤희(2003)의 '만송문고 영본', 장경준 외(2013ㄱ, ㄴ)의 '만송문고B본'임
		대가대본	대가대 도서관	동369.12 대 34 1-4 (원본)	• 문소라(2012)의 '진주판', 장경준 외(2013ㄴ)의 '대가대A본'임
		경상대본	경상대 문헌각	古(하남) B13IC 고51ㄷ v.2-4(원본)	
	낙 안 관	석전문고본	대가대 석전문고	동369.12 대 34 1-4 (원본)	• 남권희(1995)의 '전주판', 장윤희(2003)의 '대구가톨릭대학본', 문소라(2012)의 '전주판', 장경준 외(2013ㄴ)의 '대가대B본'임
계명대본		계명대 도서관	(이) 349.14 고사경ㄷ 1-4 (원본)	• 장윤희(2003)의 '계명대학본', 문소라(2012)의 '낙안판', 장경준 외(2013ㄴ)의 '계명대B본'임	
고려대본		고려대 도서관	B7-A41 1-3 (원본, 복제본)	• 문소라(2012)의 '낙안판'임	

계통	약호	소장처	청구기호	참고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낙안관	경북대본	경북대 도서관	古中 340.962 대34 (원본)	• 문소라(2012)의 '낙안관'임
		통문관본	통문관	청구기호 없음 (원본)	• 박희숙(1985)에서 '刊年未詳'으로 소개한 책임
		일본국회도서관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WB23-1 (이미지 파일)	• 남권희(1995)에서 소장처만 밝힌 책임
		소케문고본	일본 대마도 역사민속 자료관	宗家文庫 漢籍 朝鮮刊本 B-6 1-1,2,3,4,5,6 (원본)	• 박희숙(1985)의 '대마도본', 안병희(1985)의 '증가문고본'임
		장서각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B131C-2 (원본, 마이크로필름)	
	평양관	규장각본	서울대 규장각	貴 1709-v.1-4 (복제본, 마이크로필름)	• 영인본(서울대 규장각 편 2001) • 안병희(1985)의 '평양간본', 장경준 외(2013-)의 '규장각A본'임
		충남대본	충남대 도서관	고서史 政法類 73. 1-4 (원본)	• 문소라(2012)의 '평양관'임
		서강대본	서강대 도서관	도서 정리중(원본)	
		일사문고본	규장각 일사문고	一叢古 349.2-D131 v.15-22, v.23-30 (원본, 복제본)	• 장경준 외(2013-)의 '규장각B본'임
		만송문고본	고려대 만송문고	만송 B7-A118A 1-3 (원본)	• 문소라(2012)의 '평양관', 장경준 외(2013-)의 '만송문고C본'임
기타 ⁴⁸⁾	개인소장A본	불명		• 문소라(2012)의 '태화나주판'임 ⁴⁹⁾	
	개인소장B본	불명		• 문소라(2012)의 '평양관'임	
	개인소장C본	불명		• 남권희(1995)의 이돈주 소장본임 ⁵⁰⁾	
	개인소장D본	불명		• 남권희(1995)의 조성목 소장본임	
	비번사본	불명		• 花村美樹(1936)의 '비번사본'임 ⁵¹⁾	

46) 보경문화사 편(1986) 영인본에는 영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몇 가지 있어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첫째, 제1책에 모아 실은 목록의 순서가 원본에는 '총목, 목록1, 도판'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영인본에는 '총목, 도판, 목록1'의 순으로 되어 있다.

둘째, 영인본에는 권16의 제2장 앞면 다음에 제3장 앞면의 내용이 중복되어 실려 있고, 제2장 뒷면의 내용은 빠져 있다. 그러나 원본에는 제대로 실려 있다.

셋째, 원본에는 권23의 제1장 10행의 맨 아랫부분에 묵등(墨等)이 있는데, 영인본에는 이것이 지워져 있다.

넷째, 원본에 발문(跋文)이 없어 영인본에서는 광주판 계통의 것으로 보충하였는데, 앞뒤 장이 바뀌어 인쇄되어 있다.

[붙임 2] 계통별 각수 이름 및 판심의 특징

1)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호사문고본·고마자와대학본)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총목	상어미	之	2:7	상혹구	口	14:11	상어미	久
목록1:2	상어미	尹	3:1	상어미	元	15:3	하어미	三
목록1:4	상혹구	申	3:2	상혹구	申	16:6	상혹구	公
목록2:1-5	상어미	四	3:3-4	상혹구	斤	17:2-3	상혹구	公
목록4:1-3	상혹구	二十三	3:9	상혹구	斤	17:6-7	하어미	了
목록1(도판) :6-7	상어미	引	3:10	상어미	几?	17:8	상혹구	引
	하어미	一	4:3	상어미	元	18:3	상혹구	引
목록1(도판) :8	상어미	一	4:4-5	하어미	引	18:6	하혹구	上
1:3	상어미	元	4:6-7	상어미	文	18:9	상혹구	引
1:4	상혹구	申 ⁵²⁾	4:10	상어미	文		하혹구	
1:5	상혹구	尹	5:1	상혹구	子香 (혹은 了香)	18:10	하어미	了
	하혹구	斤	5:2	상어미	丁	18:13-14	하어미	三
1:9	상어미	引	5:6	상어미	文	18:17	하어미	三
1:10	상어미	元	5:7	상어미	元	19:2	하어미	三
1:11	상어미	之	6:1	상어미	元	19:5-6	상혹구	公
1:13	상어미	伸	6:2-3	하어미	引	19:7	하어미	二 혹은 三
1:14	상어미	元	6:4-5	상어미	文	20:2	하혹구	三

47)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본에서 ‘一叢古 349.2-D131’로 분류되어 있는 세 책 가운데 ‘v.3-12’는 광주판에 속하고, ‘v.15-22’와 ‘v.23-30’은 평양판에 속한다.

48) 선행연구에는 기록이 있으나 아직 조사하지 못한 책들을 기타로 분류해 놓았다.

49) 박희숙(1985)에서 진봉덕 소장본으로 홍문관본(본고의 광주판)과 같은 책이라 소개한 판본이다. 문소라(2012)에서는 태화나주판으로 분류하였다.

50) 남권희(1995)에서 1687년 내사본이라고 소개한 판본이다. 평양판으로 추정된다.

51) 花村美樹(1936)에 따르면 『備邊司』의 印記가 있고, 매책 권두 오른쪽 변란 바깥 아래 『備局上』이란 墨書가 있는 판본이다. 또한 제1책의 권두 오른쪽 변란 바깥 아래 『樂安上』이 쇄출(刷出)되어, 이를 통해 전라도 낙안에서 중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1:15	상어미	引	6:8	상어미	久	20:5	상혹구	息
1:17	상혹구	同	6:10	상어미	元	20:11	상어미	了
1:18	상어미	之	7:1	상어미	元	20:15	하혹구	公
1:21	상어미	元	7:4-5	상어미	元	20:16	상어미	49
1:22	상어미	之	7:6-7	하어미	引	21:1	상혹구	息
	하어미	訓	7:8-9	상어미	文	22:2	상혹구	息
1:23	상혹구	玉十同?	7:10-12	상어미	元	22:5	상혹구	公
1:25	상어미	元	7:13	상어미	之	22:6	하어미	了
1:27	상어미	引	8:1-2	상어미	文	22:7	상혹구	公
1:28	하혹구	中 ⁵³⁾	9:3	상어미	之	22:8	하어미	了
1:29	상혹구	元斤并	10:1	상어미	之	23:2	상어미	了
1:30	상어미	之	11:1-2	상어미	元	23:4	상어미	了
1:31	하어미	白	12:2	상어미	之	24:5	상어미	了
1:34-35	상어미	之	12:5-6	상어미	之	25:1	상어미	了
1:36	상혹구	五	12:7	상어미	文	25:4	상어미	了
1:37	상혹구	中	13:3	하혹구	斤	28:10	상혹구	了
1:38	상어미	元	13:5	상어미	元	28:12-14	상어미	了
1:39	상어미	引	13:6	상어미	文			
1:41	하어미	白	13:7	상어미	迂	30:1	상혹구	息
2:1	상혹구	世斤	13:8	하혹구	斤			
2:2	상어미	元	14:4	상어미	文			
2:5	상어미	之	14:5	상어미	元			
2:6	상어미	引	14:10	상어미	之			

52) ‘고마자와대학본’은 육안으로 보기에 ‘丁’이 세로로 적혀 있는 듯하다.

53) ‘고마자와대학본’은 ‘中’으로 되어 있음.

2)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공주판 계통(내각문고본·만송문고본)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목록2:2-4	하흑구	훈	5:5	하흑구	훈
1:15,16	하흑구	ㄱ	6:1-3	하흑구	훈
2:1,2	하흑구	王	8:1-3	상어미	上
2:3	상흑구	王	12:1	하흑구	文王
2:4	상흑구	文王	12:2	상흑구	
2:5	상흑구	즈(반대로 인출)			
2:5	하흑구	안	13:3	상어미	王
2:6	상흑구	즈(반대로 인출)	14:4	상흑구	上(반대로 인출)
2:7,8	상흑구		17:7,8	상흑구	
2:9	하흑구	즈(반대로 인출)	18:1-4,7,8	하흑구	훈
3:3	상흑구	工	19:6-7	상어미	天
3:4	하흑구	去	20:1	상흑구	天
3:5,6	상흑구	즈(반대로 인출)	20:3	상어미	天
3:7	상흑구		20:4	상어미	任
				하어미	天
3:8	상흑구	法云	20:5	하어미	天
3:10	하흑구	즈(반대로 인출)	20:6	상어미	天
4:1	하흑구	스	20:7	상어미	天
4:2,3,5	하흑구	훈		하흑구	主十
4:7,8	상흑구		20:8	상어미	天
			22:8	하어미	只
			22:9-11	상어미	只
4:8	하흑구	훈	28:15,16	하흑구	훈
			28:18	하흑구	훈

3)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광주판 계통

(규장각본(奎), 규장각본(古), 연세대본, 통문관본, 일사문고본, 계명대본)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목록1:1	하혹구	玄	5:5	상혹구	玄	18:7,8	하어미	一
목록2:1	상혹구	五 (좌우반대)	5:6	하혹구			상하 백구	
목록2:2	상혹구	六 (좌우반대)	6:3.4	하혹구	玄	18:9	하혹구	玄
목록2:3	상혹구	七(좌우반대)	6:8	관심제 '律六' 중 '律'만 음각		18:17	하혹구	日
목록2:4	상혹구	八	6:9,10	하혹구	世	18:18	상하 백구	
목록2:5	하혹구	九	7:1	하혹구	井	19:2	상하 백구	
목록3:1	하혹구	十	7:2	상혹구	井	19:3,4	상어미	立(추정)
목록3:2	하혹구	十一	7:3	하어미	仁	19:5-6	하혹구	각
목록3:3	하혹구	十	7:5	하백구	光州太華	19:7,8	하백구	馬木(음각)
목록3:4	하혹구	十三 ⁵⁴⁾	7:6	하백구	光州太華刊	20:4.5	하어미	王
목록4:1	하혹구	十三	7:7,8	하혹구	각보(로 추정)		하혹구	井
목록4:2	하혹구	十五	7:9	하혹구	진	20:7	상어미	太
목록4:3	하혹구	十六	7:10	하혹구	↓平	20:8	상하 백구	
목록1:5	상혹구	玄	8:1	상혹구	xxxx	20:10	상혹구	玄
	하혹구	玄十七 (좌우반대)	9:1	하혹구	玄		하혹구	玄
목록1:6	상혹구	陟?	10:1	하혹구	玄 ⁵⁵⁾	20:11	상하 백구	
	하혹구	十八玄	10:2	상혹구		20:15	상하 백구	
목록1:7	상혹구	十九	12:1,2	하백구	光州	21:1,2	상혹구	玄
목록1:8	상혹구	二十	12:5,6	상하 백구		22:4	상혹구	玄
1:1	하혹구	二十一	12:6	하혹구	각	22:11,12	상혹구	井
1:2	상혹구	二十二	14:4	상하 백구			하혹구	王
	하혹구	世	14:5	하어미	王	23:1	하어미	一
1:3	하혹구	二十三		하혹구	井	23:4	하혹구	신평
1:4	하혹구	二十三	14:6	상혹구	井	23:5,6	상혹구	玄
1:7	하혹구	世		하혹구	王	24:4	하혹구	世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1:15	상혹구	古	14:7,8	상혹구	𠄎	26:4	하어미	신평
	하혹구	世	14:9,10	하백구	馬木 (음각)	27:1	하백구	州
1:16	하혹구	世	14:11	하어미	法 (좌우반대)	27:3,4	하혹구	井
1:23	상어미 뒷부분이 백구		14:13	하어미	仁	28:1,2	하혹구	玄
1:26	상혹구	立	15:1	상혹구	人 (세로)	28:5,6	상혹구	𠄎
1:27	상하 백구		15:2	하혹구	𠄎	28:7	하어미	仁
1:28	하어미	t(좌우반대)	16:3,4	하어미	一	28:9	하백구	馬木(음각)
1:29,30	상혹구	古		상하 백구		28:10	하백구	馬木(음각)
	하혹구	世	16:5,6	상혹구	𠄎		상하 백구	
1:41	하어미	t(좌우반대)	17:1	상하 백구		28:11	하혹구	井
1:42	하어미	t	17:2	관심제 ‘律第十七’		28:12	하혹구	각
2:3	상혹구	王	17:4	하혹구	신	28:15	하혹구	𠄎
2:4	하혹구	𠄎	17:6	상혹구	辛平	29:1	하혹구	각
2:6	하혹구	井		하혹구	신	29:2	상어미 위 백구	
3:3	하혹구	世	17:8	상하 백구		29:3	하어미 아래 백구	
3:4	하혹구	古	18:1	상혹구	陂			
3:8	상혹구	玄		하혹구	玄			
4:1,2	하어미	t	18:2	하혹구	玄			
4:3	상하 백구		18:3	상혹구	古			
			18:4	하혹구	古			

54) 목록3의 제4장과 목록4의 제1장에서 보이는 각수 이름(별도의 장차표시)은 규장각본(奎)에 만 있고, 규장각본(古)에는 없다. 이는 규장각본(古)가 보편이기 때문이다.

55) 규장각본(奎)와 통문관본에 있는 권10의 각수 이름이 규장각본(古)와 일사문고본에는 없다. 이는 규장각본(古)와 일사문고본의 권10이 보편이기 때문이다.

4)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진주판 계통(만송문고본, 대가대본, 경상대본)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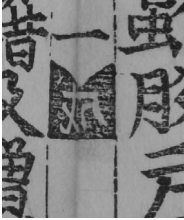
권:장차	특징	권:장차	특징
1:29	상어미가 판심제 아래에 위치함	11:1	상어미 윗부분이 흑구
1:39~41	상하흑구	11:2	상하흑구
1:42	장차표시가 '四十一'로 되어 있음	12:1,2	상하흑구
2:1	하어미 아랫부분이 흑구/ 권수제가 '大明律第一'로 되어 있음	12:3	장차가二로 되어 있음
2:2	하어미 아랫부분이 흑구	14:3-6	상하흑구
2:3,4	상하흑구	16:5,6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2:5,6	판심제 부분에 '大明律第二' 중 '大明'이 빠져 있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음	17:4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3:1,2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18:1,2	상하흑구
3:3,4	상하흑구	18:13,14	상하흑구
3:9	상하흑구	18:17	상하흑구
목록2:1	상하흑구	18:18	상하흑구/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4:1	상하흑구		
4:2	상하흑구/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19:5,6	상하흑구
4:3	상어미 윗부분만 흑구	19:10	상하흑구
4:4	상하흑구	20:2	상하백구
4:6	장차가 음각	20:5,6	상하흑구
4:7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20:9	상어미 윗부분이 흑구
4:9	상하흑구	21:1	판심제가 음각
5:7	상하흑구/ 판심제가 음각	21:2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6:5-7	상하흑구	22:11	상하흑구/ 상흑구에 '二十X'가 새겨져 있음
6:8	판심제 律六중 律만 음각	24:5,6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6:9	상하흑구/ 판심제와 장차가 음각	25:1,2	상하흑구(대가대본, 만송문고본) 상하백구(경상대본)

56) 대가대본의 흑구 비율은 제1책 14.5%(10/69), 제2책 29.5%(26/88), 제3책 20.7%(17/82), 제4책 21.4%(11/56)로 총 21.7%(64/295)이며, 만송문고본(제2책, 제4책)의 흑구비율은 대가대본과 완전히 일치한다. 한편 경상대본(제2~4책)은 대체로 대가대본과 일치하는데 두 곳(권7의 제11, 12장 및 권25의 제1, 2장)에서 차이가 난다. 경상대본에서 일부분 보판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권:장차	특징	권:장차	특징
6:10	상하흑구/ 상흑구에 '上'이 새겨져 있음	28:3	상하흑구
7:1	상하흑구	28:4	상어미 윗부분만 흑구
7:2	상하흑구(하어미에 X표시가 있음)	28:7,8	상하흑구
7:3,4	하어미 모양이 특이함	28:10	상어미 윗부분 흑구/ 관심제와 장차 음각
7:7	상하흑구		
7:11,12	상어미 윗부분만 흑구(경상대본)	28:11,12	상하흑구
9:2	관심제와 장차가 음각	29:1	하어미 아랫부분 흑구
10:1,2	상하흑구	29:2	상하흑구

5)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낙안판 계통

(석전문고본, 계명대본, 고려대본, 경북대본, 통문관본, 일본국회도서관본, 소케문고본, 장서각본)

위치	각수 이름
권4의 제1장 관심의 하어미	 成(반대로)

6)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평양판 계통

(규장각본, 충남대본, 서강대본, 일사문고본, 만송문고본)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권:장차	위치	각수 이름
1:1	상어미	十	18:10	상하어미	川
1:13,14	상어미	車+寸	19:6	하어미	申
1:23,24	하어미	公	20:6	하어미	上?
1:33,34	상하어미	仁	20:7	상하어미	
1:45,46	하어미	下	20:8,9	하어미	厶
3:2	하어미	上	20:12	상어미	仁
목록2:4,5	하어미		20:13	상하어미	仁
4:1	하어미	山	20:14	상어미	一
5:7	상하어미	仁	20:15	하어미	一
6:1	상하어미	仁	20:16,17	하어미	上
6:8,9	하어미	三	22:4,5	하어미	下
7:10,11	하어미	厶	목록4:3	하어미	ㄸ
7:12	하어미	二	23:1	하어미	
7:13	하어미	ㄹ	23:2,3	하어미	三
13:7,8	하어미	下	24:6	상어미	卜
14:2,3	하어미	朴	26:3,4	하어미	ㄸ
14:4	하어미	公	28:2	하어미	三
14:5	상어미	公 (상하 거꾸로)	28:3	하어미	二
14:14	상어미	車+寸	28:4	하어미	三
목록3:3,4	하어미	ㄸ	28:10,11	하어미	上
15:1	상어미	車+寸	28:12,13	상어미	川
16:2	상어미	二	28:17	상어미	仁
17:2,3	상하어미	山	29:4	상어미	車+寸
17:4,5	하어미	朴	30:1	상어미	車+寸
18:9	상어미	川	30:2	하어미	山